

- 원서접수 : 2009년 12월 1일~12월 3일
- 특별전형 : 2009년 12월 7일~12월 8일
- 일반전형 공개추첨 : 2009년 12월 10일
- 문의전화 : 02)944-9943



대한민국 최고의 명문사학, 믿음으로 일하는 자유인

신일고등학교를 선택한 여러분을 대한민국 상위 1%에서 세계 상위 1%로 만들겠습니다.

세계무대를 향한 국내 최고 수준의 캠퍼스
 100% 책임지는 사교육없는 학교
 전교생 자기주도 학습 공간
 국제 수준의 영어교육실시

학교법인
신일학원



자율형사립고
신일고등학교



2009

한국대학신문
대학부문대상

교육콘텐츠우수대학

SCU e야기

e세상을 움직이는
서울사이버대학교

Vol. 6

Cyber World

가상세계의 이해 및 콘텐츠 패러다임 변화

SCU Today

사이버대학 특수대학원 설립 신청

여기 e 사람

길정우 부총장 · 김영신 동문

Special Theme

군경상담학과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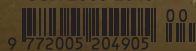
Click! SCU

SCU법사모 · 1010클럽



학교법인신일학원
서울사이버대학교

ISSN 2005-2049



학교법인
신일학원



서울사이버대학교
www.iscu.ac.kr

신일학원, 명문사학의 역사를 새로 쓰다

믿음으로 일하는 자유인, 세상에 빛과 소금이 되리라

1966년, 신앙과 교육열이 남달랐던 설립자 고 이봉수 초대이사장의 사재 출현으로 설립된 학교법인 신일학원은 40여 년간 쉼 없는 발전을 계속해왔다. 학교법인 신일학원과 신일중등학교, 서울사이버대학교, 신일문화재단에 이르기까지 '믿음으로 일하는 자유인'을 건학이념으로 삼고 이 땅의 인재들을 양성해 교육계 발전에 기여하고 있다.

글 | 편집부



학 교법인 신일학원은 '믿음의 실천과 부의 사회 환원'이라는 설립자 고 이봉수 이사장의 높은 뜻이 고스란히 계승되고 있다. 시대흐름의 변화와 발전을 주도하는 창의적, 자주적, 글로벌 인재를 양성하는 명실 공히 명문학원으로 자리 잡은 것이다.

서울사이버대학교는 2001년 설립된 이래 만족도 높은 온라인 교육 환경의 기반을 다진 결과, 개교 9년 만에 9,000여명의 재학생과 7,564여명의 학사 학위자를 배출하며 국내 최고의 명문사이버대학으로 성장했다. 특히 사이버대학으로서는 이례적으로 학생 중심의 최적의 교육환경 조성을 위해 100억 원을 투입, 첨단 멀티미디어 기법을 강의에 도입하는 등 콘텐츠 개발에 전폭적으로 지원하고 있다. 차별화된 수업방식과 학습자 중심의 자기주도학습을 통해 질 높은 최고의 콘텐츠를 보유해 교육과학기술부·한국교육학술정보원 원격대학 콘텐츠 지원 5차례 선정 등 교육부의 '원격대학 종합평가'에서 최우수사이버대학교로 선정되기도 했다.





명문사학의 살아있는 역사를 만들어가는 신일학원

올해는 종합대학교로 승격, 사이버대학 최초로 대학원 설립을 앞두고 최종 인가를 기다리고 있으며 2009 한국에서 가장 신뢰받는 브랜드대상을 수상하면서 사이버대학의 리더로 자리매김하고 있다. 또한 법인 내 신일중고등학교는 개교 이래 재단의 건전성과 우수성, 학원시설에 대한 아낌없는 투자, 교육환경과 내실 면에서도 사학의 모델로서 고교 평준화 이전부터 명문사학으로 이름을 높였고, 정·재계를 이끄는 동문들이 많기로도 유명하다.

올해로 8회째를 맞은 '신일스승상'은 교사들에게 참된 교육자로서 동기부여와 자부심을 심어주었고, 2010년 자유훈 선정으로 인정받은 교육역량은 명문사학의 명성을 드높이게 될 것이다. 학업뿐만 아니라 유서 깊은 신일야구팀이 올해 청룡기 우승컵을 획득함으로써 야구명문고의 이름 또한 높게 되었다.

21세기 글로벌시대에 적합한 유능한 인재는 학교법인 신일학원의 꾸준한 노력 속에서 길러져 국가와 사회에 이바지하게 될 것이다. 설립자의 바람대로 세상의 빛과 소금이 되어 귀하게 쓰일 인재들이 바로 이곳, 신일학원에서 밑알을 싹틔우고 있다.



- 1 학교법인 신일학원 캠퍼스 전경
- 2 고 이봉수 설립자, 초대이사장은 학교법인 신일학원을 설립해 사학 발전의 획기적 계기를 마련했다.
- 3 중앙일보 경제주간지 이코노미스트가 창간 25주년을 맞아 주최한 '2009 한국에서 가장 신뢰받는 브랜드대상' 시상식에서 서울사이버대학교가 브랜드대상 수상의 영예를 안았다.
- 4 개교 이래 국내 최고의 온라인 명문대학으로 성장해 온 서울사이버대학이 올해 종합대학교 승격과 함께 내년 부터 대학원 과정을 개설, 온라인 대학원 시대를 본격 개막한다.
- 5 학교법인 신일학원(이사장 이세웅)이 제정한 제8회 '신일스승상' 시상식은 서울·경기권 선생님을 대상으로 1천만 원의 상금을 수상한다.
- 6 신일고가 제64회 청룡기 전국고교야구선수권대회에서 우승컵을 안았다.
- 7 2010학년도 신일고등학교 자율고 입학설명회

디지털이 만든 새로운 삶 가상세계의 멋진 부상

가상세계는 컴퓨터 안에서 3차원 공간을 통해 생활하면서 마치 현실 세계와 같은 느낌을 갖게 하는 것이다. 우리는 사이버를 통한 가상세계의 출현을 현실세계의 반대 개념으로 알아왔지만 더 이상 가상 세계는 현실의 반대가 아닌 것이 되었다. 지금 이 시대에 누가 인터넷, 사이버, 온라인 세계를 현실 세계가 아니라고 부정할 수 있을까?

글 | 이성태 교수(멀티미디어디자인학과)

현 재 많은 사람들이 인터넷을 통해 쉽게 접근할 수 있는 공간이 사이버 월드 즉 가상세계이다. 가상세계는 상상에 의해서 만들어진 현실, 개연성이 있는 허구, 즉 현실세계에서 일어날 수 있는 허구라는 것과 상상의 세계이지만 마치 현실세계와 같도록 느끼게 하는 가상 현실 기술을 말한다. 즉 컴퓨터 등의 장치를 이용해서 만들 인공의 공간(Cyber Space)에서 사용자가 현실감을 느낄 수 있도록 하는 것으로 사용자에게 현실세계와 매우 유사한 느낌을 갖도록 3차원 공간을 생성하고, 사용자는 가상현실과 연결된 입출력장치를 조정함으로써 현실감을 증가시킬 수 있는 기술이다.

현실은 아니지만 현실과 구별할 수 없을 정도로 정교하게 제작된 환경이나 물체를 사용자에게 제시하여 현실세계와 가상세계를 혼동하도록 인간의 감각과 지각을 원하는 대로 속이고자 하는 것이 바로 사이버월드이다. 이때 가상현실 기술은 인간의 오감(시각, 청각, 미각, 촉각, 후각)을 자극할 수 있는 요소기술을 통해 구현되어지는데, 현재는 시각 및 청각을 이용한 기술들이 대부분이다.

세컨드라이프

웹기반 교육, 웹기반 학습이 활발하게 연구되던 시기에는 '웹' 자체가 가상세계로 인식되었으나 최근에는 가상세계라고 하면 3D(3차원) 기반의 커뮤니티로 인식되는 세컨드라이프(secondlife)가 대표적이다. 글로벌 기업들이 세컨드라이프에 지점을 열어 그곳을 방문한 사람들과 의사소통을 활발하게 하고 이득을 창출하는 공간으로 활용하고 있다.

가상현실 콘텐츠

가상현실 콘텐츠란 사용자가 컴퓨터로 생성된 가상의 공간에서 보고, 듣고, 느낄 수 있는 데이터와 상호작용하며, 직접 또는 간접적으로 움직일(Navigation) 수 있는 콘텐츠로, 현실감의 반영 정도가 중요한 기술이 된다.



가상현실을 이용한 자동차 광고
<http://video.naver.com/2008122604120659458>

기능성게임콘텐츠

기능성게임 콘텐츠는 게임적 요소인 재미와 특별한 목적을 부가하여 제작한 게임으로 초기에 군사용으로 사용하였으나 현재는 주로 교육과 훈련, 치료 등의 목적으로 활용되고 있다. 게임 산업의 장르 다변화와 영역 확대는 물론 게임에 대한 부정적 인식 해소와 건전한 게임 문화 조성에도 기여할 수 있기 때문에 게임 업계의 관심이 고조되고 있다.

이러한 가상세계에서 우리가 콘텐츠와 함께 살아가기 위해 미래는 어떻게 변할 것인가?

첫째, 디지털 가상세계 관련 콘텐츠는 향후 교육, 관광, 민원, 회의 등 상상가능한 대부분의 서비스가 이루어지는 미래 콘텐츠 유통시장의 핵심 플랫폼으로 등장할 것으로 전망된다. 둘째, e-러닝은 디지털 기술의 진전과 네트워킹 환경이 고도화됨에 따라 언제 어디서나 맞춤형, 양방향 실감 체험 학습이 가능한 u-러닝 산업으로 변화하고 있으며, 이를 통해 학습효과 증대는 물론 사교육비 부담완화라는 긍정적인 효과를 거둘 것이다. 셋째, 가상현실 콘텐츠는 가상현실 기술을 문화(관광, 체육), 제조업(의류, 자동차, 선박), 서비스업(문화, 의료, 교육, 국방, 디자인) 등 우리 실생활 깊숙이 적용될 것이다. 주변에서 늘 볼 수 있는 것들이 가상세계에서 보여지게 될 날들이 이미 와 있고 더 현실적이고 세세한 곳까지 표현될 것이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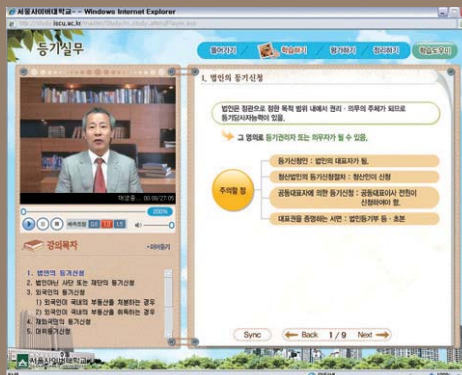
소아암 환자의 투병을 돕기 위한 기능성 게임 리미션
<http://www.re-mission.net/site/game/index.php>

현재 많은 사람들이 인터넷을 통해 쉽게 접근할 수 있는 공간이 사이버 월드 즉 가상세계이다. 가상세계는 상상에 의해서 만들어진 현실, 개연성이 있는 허구 즉, 현실세계에서 일어날 수 있는 허구라는 것과 상상의 세계이지만 마치 현실세계와 같도록 느끼게 하는 가상 현실 기술을 말한다.



서울사이버대학교의 차세대 콘텐츠 엿보기

서울사이버대학교의 새로운 e러닝 방법의 패러다임 변화구축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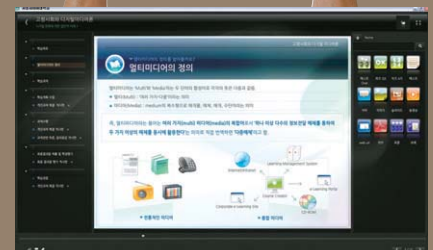
내용 중심의 기존 콘텐츠

우 리대학은 내년도 특수대학원 개원을 준비하며, 기존 콘텐츠보다 수업의 질 향상 측면에서 한층 업그레이드된 '활동 중심형' 콘텐츠를 선보일 예정이다. 그동안의 콘텐츠는 활동보다는 '내용'에 초점을 두어 "어떻게 하면 좀 더 구조화된 내용을 보기 좋게 보여줄 수 있을까?"를 고민했던 것에 반해, 차세대 콘텐츠는 '활동'에 초점을 두어 "어떻게 하면 다양한 학습활동을 통해 학습자의 실질적인 학습효과를 향상시킬 수 있을까?"를 중점적으로 고민한다. 차세대 콘텐츠는 '내용'과 '활동'의 자유로운 결합을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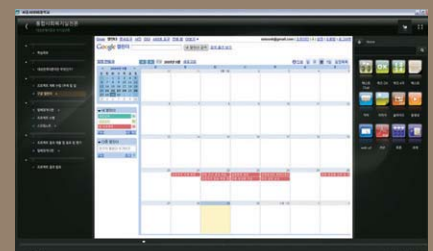
통해 수업운영의 유연성, 학습 맥락의 원활한 유지, 더 나아진 교수자와 학습자, 학습자와 학습자 간의 협력 관계를 구축할 수 있게 하여 새로운 이러닝 방법의 패러다임 변화를 이끌어내게 될 것이다.

또한 우리대학은 이러닝 학습활동 도구의 표준화와 다양한 웹 기반 콘텐츠의 자유로운 사용을 위해 기존 국내 대학 및 기업에서 이러닝 표준규격으로 도입하였던 SCORM(Sharable Content Object Reference Model, 공유가능 콘텐츠 객체 참조 모형) 대신에 세계적으로 새롭게 부상하고 있는 IMS Common Cartridge를 표준 규격으로 적용할 예정이며, 이를 위해 지난 9월 국내 대학 최초로 IMS GLC(IMS Global Learning Consortium)에 정식회원으로 가입한 바 있다. 우리대학은 차세대 콘텐츠를 내년도에 개원할 대학원 수업부터 선보일 예정이며, 이를 위해 SK C&C, 디유넷 등과 시스템 개발·구축 중에 있다.

글 | 김시원 팀장(콘텐츠개발팀)



활동 중심의 차세대 콘텐츠 예시 ①



활동 중심의 차세대 콘텐츠 예시 ②



사이버대학 특수대학원 설립 신청

사이버대학 대학원 시대 본격 개막, 서울사이버대학교가 앞장선다

서울사이버대학교가 또 한 차례의 비상을 앞두고 있다. 지난해 말 고등교육법으로 이관된 이래, 올해는 대학형태 평생교육시설에서 고등교육법상의 종합대학교로 승격되었고, 2010년에는 법률적으로 대학원 설립이 가능해진 때문이다. 특수대학원설치위원회를 발족해 대학원 개설 준비에 만전을 기하고 있는 서울사이버대학교는 3개 대학원, 5개 전공개설이라는 국내 최대 규모의 특수대학원 설치승인을 앞두고 있다.

글 | 편집부

인터넷을 통해 강의를 듣는 사이버대학교가 내년부터 대학원 과정을 개설해, 온라인 대학원시대를 본격 개막한다. 이에 특수대학원설치위원회를 중심으로 대학원 개설을 준비해 온 서울사이버대학교는 국내 사이버대학 중에서 가장 많은 학과를 개설 신청하여 최종 설치 승인을 앞두고 있다.

철저한 사전준비로 사이버대학교 최고의 교육여건 수립

서울사이버대학교는 고등교육기관으로 전환돼 종합대학교 승격을 마친 이래, 대학원 설립의 필요성과 기능성 등을 사전에 연구, 향후 설치할 특수대학원 운영의 기본방침을 정하기 위해 2008년 6월, 실무연구를 담당할 T/F팀을 대학 내에 설치하는 한편, 각 학부를 대표하는 교수들과 관련 교직원들로 연구팀(특수대학원설치위원회)을 구성했다. 이 연구팀을 통해 학내 교수들과 재학생 및 동문졸업생들에 대해 대학원 설립과 관련한 직·간접적인 의견을 수차례에 걸쳐 청취하고 수렴하는 과정을 거쳤다.

나아가 사이버대학교의 대학원 설립 및 운영사례에 대한 광범위한 문헌 조사에 들어갔다. 이미 일반대학의 대학원에서 실시중인 원격수업이 어떻게 운영되는지, 그 과정의 문제점을 사전조사해 향후 특수대학원 운영형태와 방향을 수립하고자 한 것이다. 특히 특수대학원인 만큼 일반대학원과 차별되는 재학생들의 요구사항을 수렴해 바람직한

학사운영제도에 대해 검토를 했으며, 이 과정에서 외국의 온라인 명문 대학들을 벤치마킹했다.

지금까지 사이버대학 최초의 쌍방향 학습시스템 개발, 화상세미나, 세계적 석학의 강의 콘텐츠 제공 등과 같은 만반의 준비를 통해 사이버 대학 최고의 교육여건을 수립해놓은 만큼, 서울사이버대학교는 3개 대학원의 동반설치를 자신하고 있다.

3개대학원(휴먼서비스대학원, 자산운용대학원, 정보디자인 대학원), 5개 전공과목…내년 상반기부터 개설 신청

고등교육법 개정으로 인해 고등교육기관으로 전환된 국내 사이버 대학은 총 12개 대학. 하지만 그중 6개 대학만이 대학원설립을 신청했다. 대학원설립을 위한 절차와 웹기반 플랫폼을 비롯한 기반시설, 학사운영 프로그램 등 준비과정이 만만치 않기 때문이다. 게다가 사이버 대학교의 경우 직장인 및 일반 성인을 위한 교육차원에서 석사과정의 특수대학원만 설치할 수 있어 학과선정에도 신중할 수밖에 없다.

서울사이버대학교는 휴먼서비스(전문사회복지, 상담심리 전공), 자산운용(부동산투자개발, 금융자산운용 전공), 정보디자인(미디어아트디자인 전공) 등 3개 대학원 안에 5개 전공과목 설립신청으로 국내 최대 규모다.



특수대학원설치위원회는 위원장 이재웅 교수(교무처장)를 비롯, 장미경(상담심리학과), 이성태(멀티미디어디자인학과), 김용희(부동산학과), 서영수(금융보험학과), 권금주(복지시설경영학과) 교수로 구성되었다. (사진·왼쪽 세 번째부터 시계방향으로)

휴먼서비스대학원에 개설되는 '전문사회복지전공'은 고령사회 사회서비스 질적 확장을 위한 전문사회복지 인재 양성을 교육목적으로 하고 있다. 아동 및 가족전문 서비스, 노인 및 사회 서비스, 지역사회 및 복지경영이라는 3개 세부전공을 통해 시대적 변화에 부응하는 복지전문가 양성이 목표다. '상담심리전공'은 고령사회에서 개인의 적응과 사회문제 해결능력을 갖춘 창의적인 상담인재 양성을 위해 일반 상담심리, 세대간 상담, 사이버 상담 등을 세부전공으로 구성했다.

자산운용대학원에 개설되는 '부동산투자개발전공'은 고령사회를 준비하는 실용적 부동산투자개발 역량 함양을 목표로 금융투자, 건설 개발, 자산운용의 세부전공으로 구성됐으며, '금융자산운용전공'은



Mini Interview

특수대학원설치위원장 이재웅 교무처장

정체된 오프라인교육 패러다임, 사이버대학이 해답

O 재웅 교수(특수대학원설치위원장, 부동산학과)는 온라인 대학원시대를 앞두고 한껏 고무되어 있다. 고등교육법이 개정된 지 2년, 명실 공히 사이버대학의 전공분야를 업그레이드할 수 있는 절호의 기회라는 생각 때문이다.

“서울사이버대학교는 현재까지 굵직한 성과를 내 왔습니다. 하지만 온라인교육 패러다임은 오프라인보다도 시대변화에 민감합니다. 이런 때 대학원설립은 우리 대학이 국내에만 머무는 것이 아니라 세계 속의 글로벌대학으로 성장하는 기반이 될 것입니다.”

국내 대학교육의 패러다임은 이미 정체되어 있다는 게 이재웅 교수의 생각이다. 학부와 대학원간의 학습시스템 차별화, 기업에 있는 재능 있는 인재들이 오프라인에서 교육받기 어렵다는 점도 여기에 한 몫 한다.

매력적인 콘텐츠제공 역시 필수사항이다.

“사이버대학 최초로 도입하게 될 LCDMS는 교수와 학생 간에 쌍방향 멀티수업을 가능하게 합니다. 화상세미나, 화상 채팅으로 실시간 토론수업을 하게 되며, 온라인 콘텐츠의 특성을 살려 세계적학들의 강의를 우리 학생들이 들을 수 있게 됩니다. 우수한 학생들에게 최고의 콘텐츠 품질을 제공할 수 있다는 게 장점이죠.”

대학원 설립인가를 앞두고 수업방식을 모듈화하는 프로그램을 개발한 점도 경쟁력이다. 모듈방식으로 제작될 콘텐츠들은 국내에서는 물론 서울사이버대학의 위상을 세계적으로 높이는 계기가 될 것이라고. 오늘 10월, 대학원설립 최종인가를 앞두고 있는 특수대학원설치위원회 활약이 더욱 기대된다.



금융자산운용 실무역량 증대로 국제통용 전문자격사 양성, 전문지식과 실무경험을 겸비한 종합자산관리 전문가 양성을 목표로 하고 있다. 금융운용, 금융설계, 글로벌금융이 세부전공과목이다.

정보디자인대학원은 '미디어아트디자인전공'을 개설해 시공간, 디지털디자인의 변화를 주도하는 디자인아트 역량강화를 목적으로 하고 있으며 시각정보디자인, 방송정보콘텐츠, 가상공간연출 등 세부전공으로 구성해 창조적 시각디자인 전문 인력을 양성시킬 계획이다.

9월 서면심사와 현장실사, 웹기반 플랫폼심사 등을 거쳐 10월말 최종 인가가 나면 280명 정원의 대학원생들이 내년 상반기부터 서울사이버대학교 대학원의 명품수업을 받을 수 있다.



나눔과 보살핌 바탕으로 성장하는 서울사이버대 저력 기대

길정우 신임 부총장 취임

지난 8월 1일, 길정우 부총장이 취임했다. 당당한 미소가 인상적인 길 부총장은 미국 예일대에서 정치학 박사를 취득하고 서울대에서 강의를 하던 중 외교부에 특채되어 워싱턴대 사관에서 미국 의회담당관으로 근무했다. 이후 민족통일연구원 정책조정 및 연구조정 실장, 언론사에서 국제문제 전문기자로 지냈다. 출판 및 콘텐츠 사업에도 일가견이 있는 그는 서울사이버대학교에서 지금까지 쌓아온 경험과 역량을 한껏 풀어놓을 생각이다.

글 | 편집부

어느덧 부총장으로 취임한 지도 한 달 남짓. 분주하게 개강을 준비해왔지만 여전히 그의 일정은 쉴 틈이 보이지 않는다.

“서울대에서 강의했던 이후, 23년 만에 다시 캠퍼스로 돌아왔습니다. 때문에 개인적으로도 잘 해야 되겠다는 부담감과 책임감이 앞섭니다. 더구나 우리 서울사이버대는 명실공히 세계 최고의 사이버대학으로 자리매김할 역량을 갖추고 있습니다. 지금까지 다양한 일을 하면서 얻은 자산이 바로 유연성과 창의성입니다. 이를 바탕으로 서울사이버대학에 힘을 실어주고 싶습니다.”

길 부총장은 서울사이버대 부임 이전에도 멀티미디어 전략 및 출판 콘텐츠를 만드는 작업을 해왔다. 이처럼 콘텐츠에 대한 해박한 지식과 경험을 지닌 그이지만, 대다수 수업이 이러닝(e-learning)으로 이루어지는

길정우 부총장은 서울사이버대학교의 가장 큰 강점으로 “학교법인과 교직원 모두가 무한한 의지와 정성으로 학교를 지원하고 있다”는 점을 꼽았다.

서울사이버대에 오게 된 것은 그로서도 큰 도전이었다. 그럼에도 서울사이버대 행(行)을 결심하게 된 것은 ‘사람의 향기가 나는 대학’이라는 사실에 공감했기 때문이다.

“SCU하면 Sharing과 Challenging을 이야기하지요, 저는 여기에 또 다른 의미를 붙이고 싶습니다. 바로 Sharing과 Caring입니다. 우리 대학은 나눔과 보살핌의 정신을 실천하는 대학이며 이러한 생각을 학생들에게도 꾸준히 강조하고 있습니다. 단순 지식과 정보 전달이 아닌 인성을 심어주는 일이야말로 대학이 행해야 할 교육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는 상품에도 명품이 있듯이, 대학에도 고품격대학이 있다고 생각한다. 학교법인인 신일학원이 설립자 때부터 추구해온 바가 바로 바람직한 인재 양성, 현재와 미래가 필요로 하는 인재를 키우는 것이었다며 이러한 인식을 바탕으로 실력 있는 학생들에게 든든한 버팀목이 되겠다는 의지를 피력한다.

“한국에도 명문대가 있지만, 그 대학들이 정작 세계 100대 대학 안에 들기란 참으로 어렵습니다. 서울사이버대학교는 2007년도에 교과부에서 처음으로 실시한 사이버대학 평가에서 오프라인에 기반을 두지 않은 순수 사이버대학으로서는 유일하게 최우수대학교로 선정되었습니다. 이러한 점을 볼 때, 서울사이버대학이 새로운 미래형 교육을 선도할 수 있는 하나의 롤모델을 만들어갈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한편으로 온라인대학인 만큼 학생들에게 자기계발 의지와 소속감을 부여할 수 있는 다양한 이벤트도 고민해야겠다는 길정우 부총장. 어느덧 국내에는 사이버대학 춘추전국시대가 열렸다. 그러나 길 부총장은 대학원 설립, 한국형 교육콘텐츠 모듈화 개발 등 실질적인 발전을 꿈꾸며 성장해가는 서울사이버대학이 명실상부 세계 최고의 사이버대학교가 될 것이라 자신했다.

나이와 청각장애 극복한 김영신 씨

듣지 못해도 눈으로 보며 학습... 내 인생에 가장 행복한 도전

8월 22일 본교 차이코프스키홀에서 열린 2008학년도 후기 학위수여식에는 다양한 연령층, 각양각색의 사연을 가진 학생들이 한데 모여 그간 땀 흘리고 노력해 얻은 소중한 학위 취득의 기쁨을 함께 했다. 405명의 졸업생 중 특히 눈에 띄는 한 사람, 바로 김영신 씨다. 공부에 대한 열정 하나로 청각 장애를 극복하고 학사 학위를 받은 김영신 씨의 아름다운 사연을 들어보았다.

글 | 편집부

오 라인으로 학사학위 취득이 가능해 나이와 직업에 구애받지 않고 학업을 이어가려는 많은 이들이 공부에 대한 열정을 마음껏 쏟아내는 곳, 바로 서울사이버대학교. 김영신 씨 역시 장애를 딛고 열심히 학업에 매진해 이번 후기 학위수여식에서 꿈에 그리던 학사 학위를 받게 되었다.

“학사학위를 받고나서부터 미소가 떠나지 않아요. 제가 대학 졸업장을 받았다는 것이 정말 꿈만 같습니다.”

일곱 살때 사고로 청각장애를 얻은 김영신 씨는 항상 긍정적인 사고방식으로 문제를 해결해 나갔다. 장애 때문에 포기해야 하는 것이 많았지만 장애는 오히려 그녀를 도전하는 것을 두려워하지 않는 강한 사람으로 만들었다.

“좌절은 저를 더욱 힘들게만 할 뿐이라는 것을 깨닫고 늘 밝고 건강하게, 긍정적으로 생각하고 행동하려고 노력했어요. 많은 사람들이 장애 때문에 할 수 없다고 생각하는 것들도 저는 도전해서 이뤄내려고 열 배 스무 배 노력했습니다. 강한 의지가 저를 지금에 이르게 한 것 같아요.”

김영신 씨는 2004년 청각장애인 수화통역사 자격증을 취득한 후부터 수화를 전하 할 줄 모르는 농아인과 글을 읽을 줄 모르는 농아인들을 대상으로 중계통역을 해주는 역할을 해왔다.

“중계통역을 하다보면 법률적인 문제가 생기거나 좀 더 세부적이고 정확한 의사소통이 필요할 때가 생기기도 하는데요, 그때마다 법률적인 지식이 필요하다는 것을 많이 느꼈어요. 그래서 전문적인 법률 지식을 쌓기 위해서 서울사이버대학교 법무행정학과에 입학하게 되었지요.”

김영신 씨는 입학 후 농아인들의 복지를 돕고자 사회복지사 자격증에도 도전했다. 사이버대학의 특성상 수업내용이 텍스트로 정리되어 있어 일반대학에서 수업을 듣는 것보다 내용을 파악하는데 훨씬 수월했다.

“들을 수는 없지만 보면서 공부할 수 있었습니다. 잘 정리된 강의노트를 보며 온라인으로 공부할 수 있다는 것은 정말 저에게 너무나 고마운 일이었어요. 서울사이버대학교가 있기에 제가 하고 싶은 공부를 마음껏 할 수 있었답니다.”

환갑을 바라보는 나이에도 불구하고 청각장애를 극복하고 학사학위를 취득한 김영신 씨. 졸업 후 학교에서 배운 학문을 바탕으로 세상과의 소통에 어려움을 겪고 있는 청각장애인들에게 도움이 되는 일을 더 많이 하고 싶단다.



군 복무가 의무제인 대한민국에서 군경상담의 역사는 의외로 짧은 편이다. 한국상담전문가연합회와 제2작전사령부가 협력해 체계적 군경상담을 시작한 때는 2006년, 그 이전까지 현역 지휘관이나 군종목사가 해왔던 상담을 민간에서 수행하게 된 것이다. 이후 실질적인 상담 효과와 수요를 면밀히 분석해 국내 최초로 군경상담학과를 서울사이버대학에 신설, 2008년부터 신입생을 모집해 전문 군경상담인력을 양성하고 있다.

글 | 편집부



국내 최초, 유일의 군경상담학과

병사들 마음 바로 읽는 교육, 인간중심 병영문화 정착시키는 전문가

지원제가 아닌 의무제인 군 복무는 대한민국의 현실에서 특수하고도 민감한 사안이다. 하지만 외 부현실의 급격한 변화에도 불구하고, 군 내부현실은 그다지 빠른 대응을 하지 못하는 상황이었다. 때문에 군 입대 전의 생활과 군 복무환경의 차이를 받아들이지 못하는 부적응자가 속출했고 사회 문제로까지 대두됐었다. 이런 때, 국내 대학 최초로 개설된 서울사이버대학교의 군경상담학과는 병사들의 부대 적응을 돕고 지휘통솔을 위한 하나의 대안으로 군 상담이라는 새로운 영역을 개척하고 있다.

군경의 정신건강 증진으로 무형전력 강화에도 크게 기여

군경상담학과 신설배경은 2006년으로 거슬러 올라간다. 당시는 국방부가 '존중과 배려'를 바탕으로 한 '인간중심의 병영문화정착'을 위해 병영문화개선 정책을 적극 추진, 큰 성과를 거두기 시작한 시기였다. 그러나 개인의 심리사회적 개별성과 군대문화의 충돌, 병영의 특수적 환경으로 인해 신세대 장병들의 부대 부적응은 여전히 사회적 문제로 부각되고 있었다. 병영문화, 복무환경 개선에도 불구하고 군 입대 전 사회생활과 병영생활의 괴리감을 극복 못한 장병들의 자살, 복무부적응 등은 상대적으로 증가하는 추세였기 때문이다.

이 같은 현상을 효과적으로 해결하기 위해 병사를 현장에서 직접 지휘 관리하는 간부들에게 신세대 장병의 심리적 상태 이해와 상담기법 능력이 필수요건으로 제시되었다. 이는 부대 내 보호 및 관심병사를 조기에 식별해 적절한 진단과 지속적인 상담을 통해, 그들이 보람된 군 복무를 마치고 건전한 민주시민으로 사회에 복귀할 수 있도록 돕는 데 목적을 두고 있다. 또한 자원봉사자로 구성된 민간상담전문가의 투입으로 군 지휘관들의 부담을 덜어줄 수 있었다.



한편 경찰상담은 심리상담 및 교육을 통해 경찰 개인의 심리적 안정과 정신 건강증진을 도모하고, 상담기술 향상을 통해 직원의 인사관리 및 경찰고유의 업무를 향상시키는 데 목적을 두고 있다. 문제가 있는 직원을 적절하게 관리해 건강하고 바람직한 경찰문화를 조성하고, 혁신적인 국민의 경찰관 이미지를 개선해주는 데도 도움이 된다. 따라서 군경상담은 군경 복무자들의 복무 환경 적응을 돕고 정신건강을 증진시켜 군경의 무형전력 강화에도 크게 기여한다는 평가를 받고 있다.

군경상담 전문교육은 세계적으로도 놀라운 시도

21세기 원격교육을 통한 훌륭한 인재육성을 위해 노력하는 서울사이버대학교는 교육수요자들의 실질적인 수요를 적극 반영해 왔다. 특히 그 동안의 수요를 면밀하게 분석해 군경 상담학을 전문분야로 교육해야 한다는 필요성을 토대로 국내 최초로 학과 교육과정을 개설해 운영하고 있다. 이는 국내 최초일 뿐만 아니라 세계적으로도 놀라운 시도이며, 전문분야 실무교육을 주로 하는 전문대학에서도 유례 없는 일이다.

군경상담학과의 활동은 이론과 실무를 병행한 체계적 학사일정으로 군경상담전문가 양성, 한국상담전문가연합회와 공조해 육해공군시설 방문 특강, 사령부 및 초급간부를 대상으로 한 군 상담 교육, 군 상담사 자격증 수여 등으로 활발하게 이루어졌다.



사진은 강의 중인 정동한 석좌교수
(전 국방대학교 총장, 예비역 중장)

군경상담학과는 군경 복무자들의 복무 환경 적응을 돕고 정신건강을 증진시켜 군경의 무형전력 강화에도 크게 기여하는 역할을 하고 있다는 평가를 받고 있다. 서울사이버대학교의 군경상담학과 개설은 국내 최초일 뿐만 아니라 세계적으로도 놀라운 시도이며, 전문분야 실무교육을 주로 하는 전문대학에서도 유례 없는 일이다.



Mini Interview

군경상담학과 이정원 학과장

군경상담은 생명을 살리는 일, 한명의 병사라도 더 돕고 싶어

목 회상담을 전공한 이정원 교수는 법원에서 가정갈등, 이혼문제를 상담하며 신학대 기독교상담학과 교수로 재직하고 있었다. 그러다 2006년, 당시 제2작전사령부 권영기 사령관을 만나면서 군경전문상담가로서 새로운 전환점을 맞게 된다.

“이전까지 군경상담은 군종목사나 직속 현역지휘관의 역할이었어요. 상담을 받는 병사 입장에서 편할 리가 없었죠. 제2사령관님의 제안을 받고 현역 병사를 만나봤는데, 처음에는 마음을 열지 않더라고요. 하지만 인내심을 갖고 다가서자 점차 편안하게 자신의 이야기를 털어놓기 시작했어요. 입이 아니라 마음을 열게 하는 일이 군경상담의 핵심인 거죠.”

병사들은 처음에 이정원 교수를 현역군인, 또는 군인 출신으로 오해했다고 했다. 그만큼 민간상담가의 활동이 취약했던 분야였기 때문이다. 하지만 전혀 군경과 상관없는 민간인의 관심과 애정을 깨닫고 나자 누나처럼, 이모처럼 받아들이기 시작했다.

“학과 재학생들의 80%가 현역군인이고 5%정도가 현직경찰이에요. 현장에 있는 만큼 병사와 경찰들의 고충에 접근하기 쉽고 문제파악도 용이하지요. 민간 인력도 중요하지만, 실제 현장에서 병사들과 상담해야 할 간부들의 상담분야 취약요인을 해결하는 이론과 실무교육이 병행되고 있어요.”

이정원 교수는 군경상담학과를 ‘바로 뛰는 학과’라고 표현한다. 군 시설 특강은 물론 공군대학, 해군리더십센터 상담교육 프로젝트 등 적극적인 외부활동과 함께 군경상담학과를 알리는 일도 열심히 다.

“얼마 전 특전사 근무 학생이 학과MT에 참여했을 때 한 병사가 했던 말이 있어요. 비 맞으며 훈련받는데 공허하고 처량했다고 하더군요. 그들의 숨은 수고와 노력 덕분에 우리가 안전하게 살고 있는 거잖아요. 한명의 병사라도 더 도와야한다는 사명감이 오늘도 저를 뛰게 만들어요.” 군경상담은 생명을 살리는 일이라고 강조하는 이정원 교수, 국내 군경환경의 특수성 속에서 빛을 발하게 될 군경상담전문가 양성은 사명감에서 출발한다.



함께 공부하며, 졸업과 자격증 '두 마리 토끼' 잡는다

서울사이버대학교는 개별적인 온라인 수업을 기반으로 하는 까닭에 학생들이 서로 유대감을 갖는데 어려움이 있을 것 같지만 사실은 그 반대다. 같은 과의 동기, 선후배가 서로 얼굴을 보며 만날 수 있는 동아리, 학과 소모임 등 오프라인 모임이 매우 활성화돼 있다. 이중 법무행정학과와 'SCU 법을 사랑하는 모임'은 나이를 초월한 공부 열정으로 유명하다.

글 | 편집부

법무행정학과 SCU 법사모 탐방

지난 4월 오프라인 만남을 시작한 'SCU 법을 사랑하는 모임', 일명 법사모는 온라인 강의로 해소되지 않은 학업 갈증을 법무행정학과 선후배가 서로 채워주기 위해 탄생했다. 인생의 반전과 공부에 대한 열정으로 나이에 연연하지 않고 과감하게 서울사이버대학교에 입학한 이들에게 법사모는 사이버공간의 벽을 허물고 '혼자가 아니라 함께' 공부하며 졸업과 자격증 취득이라는 두 마리 토끼를 잡겠다는 의지의 표현이기도 하다.

법사모 회원들은 매주 토요일 오전 10시부터 오후 3~4시경까지 본교와 경기지역학습관(인덕원), 또는 외부장소에서 민법을 공부하고 있다. 나승성 교수의 지도하에 이미 민법총칙을 1독하였고 요즘은 물권법 강의를 시작했다.

토요일 오프라인 강의와 스터디는 단순한 법 공부가 아니다. 나 교수의 강의는 일상에 일어나는 많은 사건 사고에 대한 지식을 섭렵하고 그에 대응할 수 있는 방법을 폭넓게 담고 있다. 또한 법사모가 추구하는 궁극적인 목표는 법무사를 비롯한 자격증 취득과 대학원 진학에 필요한 과목을 공부하며 서로가 더욱 발전해나가는 것이다.

공부하는 동아리 법사모에 대한 인기가 날로 높아가면서 법무사 자격증을 목표로 하는 이들이 역으로 서울사이버대학교 법무행정학과에 입학하는 경우도 생겨났다. 또 동아리 활동이 활발해지면서 학과 오프라인 활동과 게시판도 활성화되었다.

법사모 회원들은 지도 교수의 헌신적인 지도와 이미 현직에서 일하고 있는 학생들간의 교류 속에 서로 격려하고 의지하며 공부에 대한 열정을 이어가면서 앞으로 법무행정 분야에서 끈끈한 동문애를 자랑하는 명문 학과, 명문 동아리로 거듭난다는 계획이다.

법무행정학과 법사모 고창순 회장 함께 한다는 자체가 정말 큰 힘으로

"서울사이버대학교와 법사모는 좋은 인연을 만나게 해 준 최고의 선택이었습니다." 김형근(법무행정학과)



씨는 법사모의 장점이 바로 인간적 교류에 있다고 말한다. 입학할 때의 초심을 잃지 않고 혼자 4년을 공부한다는 것이 사실은 꽤나 힘든 일이기 때문이다. 법사모는 온라인 수업의 어려움을 해결하고 좋은 인간관계도 쌓을 수 있게 하며, 자격증 때문에 일반 학원을 찾는 경우가 많은데 저희는 혼자가 아니라 교수님, 선후배와 함께 하고 싶은 공부를 마음껏 할 수 있어 행복하다고 말하는 고창순 회장. 함께 한다는 것은 정말 큰 힘이 된다고 강조하는 그는 앞으로 서울사이버대학교의 많은 학생들이 법사모와 함께 법률적인 지식과 도움을 주고 받으며 좋은 인연만들기를 희망했다.

나승성 교수(법무행정학과)와 법사모 회원들과 함께



확실한 투자정보 제공, 10년 안에 10억 이상 벌자

은행, 증권, 보험, 부동산 등 금융업에 대한 전문적인 정보와 재테크 방법을 서로 나누기 위해 탄생한 동아리 1010클럽. '10년 안에 10억 이상을 벌자'는 뜻이 독특하면서도 재미있다. 전공과 전문지식을 함께 공부하고 각자의 직업을 활용하여 서로 도움도 주고받는 1010클럽은 명실상부 금융보험학과와 서울사이버대학교의 대표 동아리로 자리 잡아가고 있다.

글 | 편집부

금융보험학과
1010
클럽

1010클럽은 재테크에 관심이 있고 자신의 자산을 효과적으로 관리하고자 하지만 마땅한 투자 정보는 물론 전문 지식이 없어 어려움을 겪는 이들에게 금융보험학과 의 전문성을 살려 금융 및 재테크 정보를 제공하는 창구 역할을 하고자 클럽장 김성진 씨가 첫 모임을 제안하면서 2009년 1월 탄생했다.

1010클럽 동아리의 장점은 반드시 확실한 투자 정보를 제공한다는 것이다. 또한 서로 소중한 정보를 나누고 함께 공부하는 까닭에 회원 모두가 단합이 잘 되고 서로를 신뢰하며 존중하는 분위기가 잘 정립돼 있다. 친목과 함께 비교적 작은 정보를 나누었던 1학기에 이어 2학기부터는 본격적인 증권정보는 물론 투자종목 분석을 통한 직접적인 투자부분스터디에 역점을 두고 있다.

봉사활동, 등산, 여행, 문화생활로 1010클럽의 활동 영역을 넓혀 회원들 간의 친목도 더욱 돈독히 하고, 1010클럽 홈페이지를 활성화해 활발한 교류의 장을 만들어 갈 계획도 가지고 있다. 또 지금까지는 금융보험학과 학생들을 주축으로 운영되었지만 앞으로는 재테크에 관심이 있고 열정적으로 전문 지식을 공부하고자 하는 타과생들의 활동을 독려할 생각이다.

1010클럽은 향후 10년을 내다보는 동아리기에 졸업 후에도 선배들이 지속적인 활동을 하며 후배들을 지원할 계획이다. 서울사이버대학교에 입학하면서 만난 소중한 선후배, 사제의 인연을 지속적으로 이어가기 위해서다. 1010클럽 회원들은 이런 신뢰와 믿음으로 이루어진 관계가 서울사이버대학교 학생 모두에게 번지기를 희망하고 있다.



금융보험학과 1010클럽장 김성진 금융전문가로서 최고 되는 꿈 간직

“서울사이버대학교 입학은 저에게 새로운 도전이었습니다. 이제 1010클럽을 통해 저의 미래를 개척하는 것이 또 다른 도전이 되고 있습니다.”



1010클럽장 김성진 씨는 참 긍정적이고 적극적인 사람이다. 증권 관련 업무를 하면서 자신이 얻은 전문 지식을 다른 이들과 나누고자 1010클럽을 만들었다는 그는 자신도 클럽 활동을 통해 중요한 정보는 물론 좋은 친구를 많이 얻었다. “저희 클럽은 신뢰가 기본 바탕입니다. 학교에서 좋은 인연을 만나다보니 요즘은 학교와 클럽에 대한 자부심까지 생겼습니다. 1010클럽 회원들은 모두 서로가 끊임없이 노력하고 도움으로써 최고가 되겠다는 꿈을 키워가고 있습니다.”



10년 후의 미래를 설계하는 동아리 1010클럽의 회원들은 최신 지식과 꿈에 대한 열정, 신뢰를 바탕으로 한 인맥이 성공의 열쇠라고 말한다.

2008학년도 후기
학위수여식 개최

‘꽃다발 대신한 러브미’ 졸업식, 화제만발



2008학년도 후기 학위수여식에는 최고령 졸업생인 노인복지학과 나영희 씨(여, 67세)와 최연소 졸업생인 사회복지학과 김효선 씨(남, 24세)를 비롯한 405명의 재학생이 졸업했다.

서울사이버대학교는 8월 22일 본교 4층 차이크로프스키홀에서 2008학년도 후기수여식을 개최했다. 이날 학위수여식에는 최고령 졸업생인 노인복지학과 나영희 씨(여, 67세)와 최연소 졸업생인 사회복지학과 김효선 씨(남, 24세)를 비롯한 405명의 재학생이 졸업했다. 이에 따라 서울사이버대는 지난 2005년 사이버대 최초로 첫 졸업생을 배출한 이후 총 7,564명의 학사학위수여자를 배출하게 됐다.

한편 나영희 씨는 고령의 나이에도 불구하고 재학 중 사회복지사, 레크레이션, 웃음치료, 가정복지상담, 공공소방관리자격증 등 총 5개의 자격증을 취득해 동기들의 부러움을 사기도 했다. 직업군인으로 2007년에 편입학한 김효선 씨는 “때로는 고된 훈련과 학업을 병행해야 되기 때문에

힘들기도 했지만 수준 높은 강의 콘텐츠를 통한 자기계발과 사회복지사 등 자격증 취득을 목표로 공부했었다”고 말했다. 또한 졸업생 가운데 41명은 남들보다 한 학기 먼저 졸업하는 조기졸업자이며, 복수전공 등 2개 이상의 학위를 취득하는 학생이 31명으로 나타났다.

한편, 서울사이버대학은 이날 졸업 축하와 함께 쌀 소비운동에 동참하고자 졸업생과 참석자들을 대상으로 경기도 연천에서 생산된 ‘아희와 쌀1kg을 무료로 나눠주는 ‘쌀 사랑 캠페인’을 벌였다. 김수지 서울사이버대 총장은 “이번 쌀 사랑 캠페인은 최근 어려움을 겪고 있는 농민들의 고통을 분담하고, 졸업생들에게는 꽃다발을 대신한 의미 있는 졸업선물이 되길 바라는 마음에서 마련했다”고 전했다.



김수지 총장은 후기 학위수여식에서 ‘쌀 소비 운동’에 동참하고자 졸업생들에게 경기도 연천에서 생산된 쌀을 나눠주고 있다.

서울사이버대학교 2009 한국에서 가장 신뢰받는 브랜드 대상수상

중앙일보 경제주간지 이코노미스트가 주관한 2009 한국에서 가장 신뢰받는 브랜드 대상 수상식에서 서울사이버대학이 영예의 대상을 수상했다. 이번 심사는 16,000 명의 온라인리서처로 조사되었다. 본상 수상은 '브랜드의 흥수' 속에서 소비자로부터 최고의 사랑과 믿음을 받는 학교로 선정된 것이어서 더욱 특별한 의미를 지닌다.

中國 하얼빈 공정대와 학술교류 협약



서울사이버대학교는 7월 13일 중국 하얼빈 공정대학교와 교육분야 공동연구 및 우호증진을 위한 협약식을 가졌다. 이를 통해 두 학교는 교육과 기술연구 분야의 정보교환을 중점적으로 진행할 예정이며 양 대학의 교수와 학생 교환, 교직원 연수 등 다양한 방법으로 활발한 교류를 하게 된다. 하얼빈 공정대학교는 선박공정학원, 건축공정학원, 컴퓨터과학 및 기술학원 등 단과대학으로 구성되어 있는 중국 내 상위권 대학으로, 중국정부에서 중점 대학 중 하나로 육성 중이다.



IMS 글로벌 러닝 컨소시엄 국내 첫 가입

서울사이버대학교는 국제 이러닝 표준 개발 컨소시엄인 IMS 글로벌 러닝 컨소시엄에 국내 대학 최초로 정식회원으로 가입했다. IMS GLC는 1999년부터 약 19종 이상의 이러닝 표준화 규격들을 발표해 왔고 국제적으로도 많은 영향력을 갖고 있다. 이로써 서울사이버대학은 이러닝 관련 표준으로 새롭게 대두되고 있는 IMS Common Cartridge를 기반으로 한 이러닝 시스템을 국내 최초로 구축할 수 있게 됐다.

2009 스웨덴 스톡홀름대 교수 초청 학술대회

서울사이버대학교 인간복지학부(사회복지학과, 노인복지학과, 복지시설경영학과)에서는 오는 10월 31일 본교 2층 국제회의실에서 세계적인 명문대학인 스웨덴 스톡홀름대학교 사회복지학과 교수진을 초청하여 학술대회를 개최할 예정이다. 이번 학술대회에서는 '스웨덴 사회복지의 현황과 전망'이라는 주제로 베리마크 교수를 비롯하여 총 네 명의 스톡홀름대 교수와 본교 인간복지학부 교수진이 논문을 발표하게 된다. 이번 방문하는 스톡홀름대 교수진들은 본교에서 온라인 강의를 비롯한 다양한 학술교류 활동을 진행할 예정이다.

'서울사이버대 특강의 날' 행사



부산지역학습관

서울사이버대학교가 1학기 종강 및 하계방학을 맞아, 7월 18일 경기, 대구, 호남 지역학습관을 시작으로 25일에는 부산 지역학습관과 강원지역 학습관에서 재학생 및 신입생 지원자와 지역민들을 대상으로 한 '서울사이버대 특강의 날'을 개최했다. 이번 특강은 온라인 강의에서 볼 수 있었던 각 학과 교수진이 직접 오프라인으로 나와 실생활에 도움이 되는 주제로 진행되었으며, 행사가 끝난 후에는 지역모임 개최를 비롯해 지역민들을 대상으로 하는 다채로운 행사가 열리기도 했다. 서울사이버대는 경기, 강원, 호남, 대구, 부산, 연무대 등 총 6곳에 지역학습관을 두고 있으며, 재학생 및 신·편입생 지원자뿐만 아니라 지역민을 위한 다양한 세미나와 동아리 활동 등 오프라인 만남을 적극 지원해오고 있다.

SCU 멘토링 평가회 및 결연식



SCU 멘토링 1학기 평가회 및 2학기 결연식이 8월 22일 본교에서 개최되었다. Sharing(나누고), Challenging(도전하며), Unified(하나되는)이라는 슬로건을 모토로 2008학년도를 첫 시작으로 해서 벌써 3번째 평가회를 가지게 된 금번 학기 멘토링 프로그램은 멘토 98명과 멘티 736명으로 시작하였으며, 온라인 활동 활성화를 위한 '킹왕짱' 이벤트실시와 멘토링 그룹 인센티브를 지급하였다.

사회복지학과 ... '정신재활에서의 권력분석' 특강



사회복지학과는 9월 12일 홍콩침례대학교의 마르쿠스 주 교수를 초청, '정신재활에서의 권력분석'이란 주제를 가지고 특강을 개최했다. 사회복지학과 초빙교수이기도 한 주 교수는 이날 ▲정신질환 환자와 의사의 관계에 내재한 힘의 문제 ▲치료 상의 관계정립에 내재된 힘의 문제 ▲정신건강 전문가와 권력문제 등에 대한 내용을 강의했으며, 김수지 전 총장이 직접 통역을 맡았다.

하반기 입시결과 4:1 경쟁률 보여

서울사이버대학교 2009학년도 후기 신·편입생 모집결과 총 1,160명이 지원하여 약 4대 1의 경쟁률을 보인 가운데, 사이버대학의 특성상 다양한 연령층뿐 아니라 회사원, 주부, 군인 등 지원자들의 직업도 다양한 것으로 나타났다. 연령별로는 30대가 34.2%로 가장 많이 지원한 것으로 나타났으며, 그 뒤를 이어 20대, 40대, 50대 순을 나타냈다.

2009학년도 1학기 우수교원시상식 개최



2009학년도 1학기 우수 교원 시상식이 8월 29일 본교 5층 강당에서 열렸다. 본 시상식은 2007년 1학기부터 매 학기 실시되고 있으며, 이날 최우수상은 부동산학과 김영규 교수, 우수상은 군경상담학과 김대균 교수, 가족상담학과 한혜규 교수, 장려상은 멀티미디어디자인학과 오혁근 교수, 교양학부 정우용 교수, 교양학부 이정옥 교수 등이 수상하였다.

제7회 한마음 대축제



서울사이버대학교 9대 총학생회는 10월 10일 신일캠퍼스 대운동장에서 『꿈을 여는 열정! 도전하는 미래!』라는 슬로건 아래 제7회 한마음 대축제를 개최했다. 재학생과 졸업생, 가족 및 교직원 등 서울사이버가족이 한 자리에 모여 우정과 화합의 장을 만들어낸 이번 행사는 오전에 체육경기, 오후에 명랑운동회 및 각 학과 장기자랑 등이 진행되었으며, 참가자들에게는 음식과 함께 고급모자, 수건 등의 사은품이 제공되었다.

제3회 베스트동아리 선발대회



대상-서사대 강원사랑



최우수상-SCU 산악회

올해로 3회째를 맞는 베스트 동아리(CLUB) 선발대회에서 최고 영예인 대상에 서사대 강원사랑이, 최우수상은 SCU 산악회, 그리고 우수상에는 아름다운 SCU와 아름다운 사람들의 모임이 각각 선정되었다. 학생 상호간의 친목을 도모하며, 학문탐구와 학습정보를 지향하고 있는 이번 행사에서 최종 선정된 동아리들은 대상의 경우 100만원, 최우수상과 우수상은 60만원과 30만원의 시상금이 수여되었다.



우수상-아름다운 SCU



우수상-아름다운 사람들의 모임

이승한 석좌교수, 『창조바이러스 H2C』 출간



9월 1일부터 서울사이버대학교 국제무역물류학과 석좌교수로 임용된 이승한 삼성홀플러스그룹 회장의 자전 에세이 『창조바이러스 H2C』가 출간되어 주목을 받고 있다. 『창조바이러스 H2C』는 이승한 회장이 삼성그룹 공채 11기 평사원으로 출발해 업계 12위인 홀플러스를 4년만에 업계 2위로, 10년 만에 매출 10조여원대의 기업으로 초고속 성장시킨 성공비결을 담은 책이다.

• 이승한 펌, 랜덤하우스코리아 펌



양병무 교수, 『좋아하는 일하면서 먹고 살기』 출간



좋아하는 일을 하면서 먹고 사는 것이 모든 직장인들의 로망이다. 하지만 대부분 사람들은 먹고 살기 위해서는 좋아하는 일을 할 수 없다고 생각한다. 과연 그럴까? 『좋아하는 일하면서 먹고 살기』는 현재 서울사이버대 평생교육원 원장으로 재직중인 양병무 교수가 쓴 일종의 자기계발서다. 이 책은 아직 꿈의 직업을 발견하지 못한 사람들에게 자신이 무엇을 좋아하고 잘 하는지 발견하는 방법을 알려준다. 적성을 알려주는 MBTI나 에니어그램, 직업가치관 검사 등 다양한 자기이해 도구를 비롯해 '꿈의 직업 찾아가기 체크리스트'가 그것이다.

• 양병무 지음, 비전과리더십 펌



이재웅 교수, 『부동산공시이론과 실제』 출간



부동산학과의 이재웅 교수가 지적제도와 등기제 도라는 양 제도를 하나의 학문적 범주로 하여 체계적으로 정리한 『부동산공시이론과 실제』를 출간하였다. 본 교재는 실거래와 부동산활동에 직접 참여하는 자와 공인중개사 시험 준비를 하는 수험생에게 있어 기본적인 참고서로서 또 부동산학을 전공하는 학생들에게는 학습을 탐구하는데 많은 도움을 줄 것으로 기대된다.

• 이재웅 지음, 부여사 펌



SCU동정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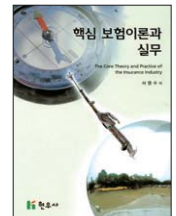


서영수 교수, 『핵심 보험이론과 실무』



금융보험학과 서영수 교수가 보험전반에 관한 이론과 실무를 체계적으로 정리한 『핵심 보험이론과 실무』를 출간하였다. 이 책은 관련 종사자 외에 일반인들도 쉽게 이해할 수 있도록 기술하였으며, 특히 보험계리사 또는 손해사정사 자격취득에 도움이 되도록 보험원리, 보험계약, 보험경영, 보험상품과 마케팅, 보험수리, 보험세제, 생명보험, 손해보험 등 다양한 보험분야를 핵심 내용 위주로 전개하였다.

• 서영수 지음, 현우사 펌



이희연 교수, 사회보장관련 논문 게재



사회복지학과 이희연 교수가 한국사회보장학회가 발간하는 전문지 『사회보장연구』(2009. 8월, 제25권 제3호)에 '국민기초생활보장제도 수급가구의 사회적 배제 경험에 관한 문화기술지 연구'란 제목의 논문을 게재하였다.

장미경 교수, 노인학대관련 논문 게재

상담심리학과 장미경 교수가 해외 유명저널 (Journal of Comparative Family Studies, Vol. 40, No.1)에 '한국의 노인학대에 대한 전망(Perspectives on Elder Abuse in Korea)'이란 논문을 게재하였다. 본 논문에서는 생태학적 관점을 바탕으로 '한국대학생들은 노인에 대한 어떤 행동들을 학대행동으로 지각하는지'와 함께 노인학대에 대한 인식에서 성별에 따른 차이를 조사 연구하였다.



2009 학과경쟁력 사업 이모저모

내일을 위한 빛나는 에너지... 글로벌 사이버대학 기반 구축



서울사이버대학교는 2009학년도 학과경쟁력 사업에 응모한 총 13개 학과를 대상으로 평가위원회의 평가를 거쳐 이중 7개 학과를 최종 대상학과로 선정했다. 지난해에 이어 2년째를 맞는 학과경쟁력 사업 선정은 사업의 타당성, 적절성, 사업수행 및 성과관리, 예산의 적정성 등 5개 영역의 평가를 통해 이루어졌다. 본 사업의 목적은 학과 경쟁력 제고를 통해 타 대학 동일 및 유사학과에 대한 경쟁 우위를 확보하고 궁극적으로 서울사이버대학교의 경쟁력을 강화하는데 있다.

학과경쟁력 사업은 1차년도인 2008학년도에 약 1억 원의 예산을 시범 지원한 결과, 학과 응집력 강화와 학생 만족도 향상 및 학과별 대외 이미지 제고 등의 성과를 얻음으로써 2009학년도에도 지속적으로 사업을 지원하게 되었다. 올해 최종 선발된 학과는 사회복지, 노인복지, 상담심리, 부동산, 보건행정, 국제무역물류, 멀티미디어디자인학과 등 7개다.

SCU사회복지 창업모델 개발연구

사회복지학과는 거점 지역을 기반으로 하는 빈곤 지역 특성별 지역아동센터 운영 모델을 연구하는 사업을 계획하였다. 이 사업은 사회복지학과와 전문화와 경쟁력을 강화하고 졸업생에게는 취업과 창업모델을, 재학생에게는 실습 자원을 제공함으로써 SCU 사회복지

지 전문가 Network 구축, 학과 발전, 지역사회 발전, 서울사이버대학교의 사회공헌활동 등 다양한 효과가 기대된다.

노인복지학과 주최 연례 학술대회 개최

노인복지학과는 고령화 사회를 먼저 경험한 일본의 노인복지 이론 및 실무영역 전문가를 2명 초청하여 현안에 대한 한일비교 학술대회를 개최할 계획이다. 이 사업은 재학생과 졸업생에게 타 사이버대학과 차별화된 수준 높은 학습과 현장전문가와의 만남을 통한 진로 상담 기회를 제공함으로써 학교에 대한 자긍심을 높이고 대외적으로 학과 및 학교의 위상을 강화하는 효과가 기대된다.

상담심리학자의 진로 강화 심포지엄

상담심리학과는 다양한 상담자격을 소지한 전문가를 초빙하는 심포지엄을 통해 학생들의 자격증 취득 준비를 돕고 학과의 중장기적 경쟁력을 강화한다는 계획이다. 이 사업은 관심 분야의 전문가들이 현장에서 실제로 하고 있는 업무에 대해 자세히 알게 됨으로써 학생들의 진로결정에 도움을 주고, 그 밖에 학교 및 학과에 대한 자부심과 긍정적인 이미지 제고, 일반인에게 상담심리학 관련 교육 기회 제공을 통한 사회공헌 등 다양한 효과가 기대된다.

학과 아이덴티티 강화사업

부동산학과는 전문성을 확대하고 대학간 학술 교류 확대, 학생모집 자료 활용, 입시지원자에 대한 학과의 수월성 홍보를 위해 학회지 발행 및 학술대회 개최 사업을 계획하였다. 이 사업은 체계적 학습과 토론 기회 제공, 오프라인 활동을 통한 교수와 학생의 일체감 향상, 학술활동을 통한 부동산학과의 질적 수준 향상과 사이버대학에서의 학과 정체성 확립 등의 기대효과가 있다.

일본 와세다대학 건강복지학부와의 학술교류

보건행정학과는 일본 와세다대학 국제학생학술제 참여, e-learning 콘텐츠 교류 및 공동개발 등 해외 유명 대학과의 학술교류를 계획하였다. 이 사업은 국제 학생학술제 준비 과정을 통해 학과 결속력 강화와 결과물을 통한 학과의 대내외적 홍보, 와세다대학과 공동으로 WBI를 통한 자격증 과정 운영 가능성, 일본 내 인적네트워크 강화로 학생들의 일본유학 및 취업의 전초기지역할 등 글로벌 경쟁력 강화의 효과가 기대된다.

무역물류 관련 자격증 종합정보실 구축

국제무역물류학과는 “자격증 취득을 위한 편의 및 기회 확대”라는 중장기 발전계획을 수립하고 무역물류관련 자격증 종합정보실 구축 제1단계 사업을 완료, 2009년에는 제2단계 사업으로서 유통관리사와 국제무역사 자격증 취득을 위한 동영상 및 자료집을 제작한다는 계획이다. 이 사업은 물류관리사에 이어 유통관리사 및 국제무역사 자격증 취득 서비스를 추가 제공함으로써 무역 및 물류 관련 대학 중 최고의 자리를 선점하고 학과의 경쟁력을 강화하는 등 긍정적인 기대 효과가 예상된다.

제2회 2009 서울사이버 디자인대전 개최

멀티미디어디자인학과는 2008년도에 이어 전국 전문대학 교수와 실업계고 교사 등을 대상으로 멀티미디어디자인학과가 중심이 되는 협회를 구성하고 ‘제2회 2009 서울사이버 디자인대전’(주제: Green 상상)이라는 공모전 사업을 시행한다. 이 사업은 우수한 고교생 및 전문대학 졸업생의 본교 유치를 위한 동기 유발, 컴퓨터그래픽 관련 업계 스폰서십을 통한 홍보 및 재취업 시스템 구축, 문화콘텐츠진흥원 및 정보통신연구진흥원 전공 관련 사업 제안을 위한 기반 조성 등의 효과가 기대된다.



- 접수기간: 2009년 10월 12일(월) ~ 11월 20일(금)
- 응모분야: 1.멀티미디어 · 콘텐츠 부문 2.사각디자인 부문 3.사진부문 4.교사 및 교원부문
- 응모자격: 제한없음
- 수상작전시 및 초대작가전: 2009년 11월 25일 ~ 12월 1일(혜화동 국민대제로원디자인센터)
- ※ 기타 자세한사항은 서울사이버디자인대전 홈페이지 (<http://multi.iscu.ac.kr/greensangsang>) 참조



Mini Interview

콘텐츠모듈화연구위원회 위원장 **이은주** 교수

온라인 맞춤형 학습의 새 모델 연다

서울사이버대학은 8월 28일 수업모듈화연구위원회를 발족했다. 사회복지학과 이은주 교수를 위원장으로 이재웅 교무처장, 박종선 교수, 조영아 교수, 이성태 교수, 남상규 교무팀장, 김시원 콘텐츠개발팀장으로 구성된 이 위원회는 앞으로 서울사이버대학의 모든 콘텐츠를 모듈화방식으로 시행하기 위해 모듈화에 기초한 콘텐츠개발 연구를 위해 구성되었다.



이은주 위원장은 모듈화 수업방식이 글로벌 시대에 맞는 참여위주, 토론수업에 강점이라고 강조한다. 주입식, 일방수업이 아닌 쌍방 커뮤니케이션이 가능해 적극적이고 능동적인 수업이 가능하다는 것이다.

모듈화에 기초한 콘텐츠개발은 학습단위를 세분화 제작해 데이터베이스에 관리함으로써, 교수의 수업준비를 용이하게 하는 한편 학생들의 학습능력에 맞는 맞춤형 교육을 가능하게 한다. 이미 미국을 비롯한 온라인교육 선진국에서 활용돼 왔으나, 아직까지 주입식 교육과 동영상 위주의 강의에 초점을 둔 우리나라에 도입하기에는 어려움이 많았다. 때문에 서울사이버대학교가 개발 중인 모듈방식은 선진 시스템의 장점을 살리면서 국내 학습체계와 충돌하지 않도록 조화를 꾀한 것이다. 모듈화 방식은 우선적으로 내년 3월에 개설될 대학원 과목에서 적용되며, 2010년부터 학부과목에도 점진적으로 모듈화를 적용해 전체적으로 확대할 예정이다.



- 발 행 처 서울사이버대학교 (142-700)서울시 강북구 미아3동 193
- 발 행 인 김정우
- 편집주간 이향아 교수
- 편집위원 고윤승, 김영민, 권기남, 이성태 교수
- 발 행 일 2009년 10월 27일
- 기획편집 서울사이버대학교 출판부 (02)944-5216 (주)디플랜네트워크 (02)518-3430